

‘문화·국제시민 의식 함양 운동’ 편다

호남미래포럼, 하반기 중점 사업 확정

9월 시·도 광역단체장 초청 간담회도

사단법인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이하 호남미래포럼)이 올 하반기 호남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주시 및 전라도 광역단체장 초청간담회를 열고 광주·전남 문화시민 업그레이드 운동을 펼치는 등 구체적인 활동에 나선다.

호남미래포럼은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14년 상반기 추진업무 평가 및 하반기 운영계획'을 위한 확대 운영간담회를 하고 이날이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호남미래포럼은 지역 차별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균등과 공정한 인사정책을 제언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선진사회 정착, 사회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 통합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호남미래포럼은 기업발전그룹·인재양성그룹·문화예술그룹·법률정책개발 등 사업부서가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제안과 관련법 연구 및 법률 제도 개선 제안 등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호남미래포럼은 이르면 9월 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주·전라남도 광역단체장 초청간담회'를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사균형 등용·인재양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9월부터 본사와 함께 광주·전남 시민의식 함양 및 위상 제고를 위해 '광주·전남 문화시민, 국제시민 업그

레이드(Upgrade)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상 호남 비하 대처, 악플 대응 및 선플 확산 등을 꾀하기 위한 '선플 확산 및 호남 비하 악플 대응'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호남미래포럼은 이밖에 '호남 격오지 초·중·고교 외국인 원어민강사 지원 사업', '추계정책세미나' 개최, 호남정신 배

양 및 호남역사연구를 담당하는 '토요사랑방' 개설 등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호남미래포럼은 포럼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 호남기업인 교류회를 구성하는 한편 재정 연합동창회와 향우회를 통한 여성계 및 청장년층 회원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성호 상임운영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호남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불균형 문제가 풀릴 때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있다"며 "실천 가능한 정책제안을 생산하고 공론화와 정책반영에 성과를 내

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갑수 이사장과 이윤훈 전 대법원장, 김승규 전 국경위원장, 김정길 전 법무부 장관, 이근범 전 전남도지사, 최봉인 재정향우회 고문, 김홍신·허신행 전 장관, 신승남 검찰총장, 김수삼 성균관대 석좌교수, 원종남 광주·전남연합동창회장, 정애리 국제기업인봉사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호남미래포럼은 호남 인사 소외와 산업 낙후와 관련한 해법을 찾고자 지난해 12월 3일 발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단법인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은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14년 상반기 추진업무 평가 및 하반기 운영계획' 확대 운영 간담회를 가졌다.



문순택 칼럼

인문학 바람이 세상을 향기롭게 물들이고 있다.

지자체, 학교, 도서관마다 인문학강좌가 열린다. 우리 지역의 인문학 진원지는 장성이다.

필암서원(筆巖書院)이 있고,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의 태생지인 장성에서 인문학 바람이 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얼마 전 나는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초청으로 '감성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1995년 9월 11일에 첫 강좌를 시작한 장성아카데미 강좌는 현재 81회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초청된 강사를 보면 이어령·박석무·유인촌·임권택·한상진·황우석·유시민·최불암·손학규·김종인·이시형·김두관·지선·이이화·박원순 등 정·관·학·예술계 등 저명한 인물들이다.

문인들만 해도 정호승·유안진·도종환·김용택·김후란·신봉승·김갑수 등 문명을 날리는 시인 소설가들이 다녀갔다. 강연 내용을 책으로 묶어 대한민국 직장인 필독서 시리즈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기도 하다.

장성군이 20년 전에 문을 연 장성아

는 어떻게 하면 보다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된 것이다.

과학지상주의와 물질만능주의적 삶을 추구하다 보니,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망각하고 말았다.

그래서 인문학을 통해 감성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상상력의 원천인 감성이 되살아나면서 창조적 뜻을 펼쳤다. 감성과 디지털의 만남으로,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아바타' '겨울왕국' 등이 탄생했다.

그동안 '해리포터'의 총 수익이 600조 원으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산업이 벌어들인 수익의 2배가 된다. 그래서 감성은 창조적인 동시에 돈이 된다. "디지털은 감성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감성은 꼭 아날로그적 정서만은 아니다.

빌 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마을 도서관"이었다면서 "인문학 없이는 나도 컴퓨터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스티브 잡스는 "문화 콘텐츠의 힘은 인문학에서 온다."고 하면서 기업경영과 첨단과학에 인문학의 접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성아카데미와 인문학 열풍

카데미는 이제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인문학 강좌로 정평이 나 기업체나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장성아카데미에 영향을 받아 전남 도내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인문학 강좌를 열고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순천사랑 아카데미, 강진 다산포럼, 담양포럼 등이다.

자치단체마다 이 같은 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한 결과, 공무원들의 인문학 마인드를 높이고 주민의식 변화를 선도하는 것은 물론, 지역민들의 훌륭한 지식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문학을 통해 행정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모든 업무에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21세기 들어 인문학의 바람이 분 것은 삶의 가치관에 대한 자성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물질주의의 만능과 고도화된 과학기술로 인간성이 마비되자, 잠시 경쟁적 삶에 침표를 찍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길이 과연 행복한 길인가" 하는 반성의 순간부터 인문학적인 삶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동안 우리는 보다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살 것인가에 매몰되었다면, 이제

20세기가 테크닉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아트의 시대이다. 정치, 기업경영, 행정은 물론 농업까지도 예술적 감성으로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다.

덴마크의 작가이자 미래학자인 롤프 안센은 그의 저서 '르네상스 소사이티'에서 물질로부터의 자유, 탈물질주의(脫物質主義)를 강조했다.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믿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감성과 스토리를 강조한다. 예술적 감성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아는 것이 힘"인 시대는 끝났다. 모든 지식은 스마트폰 안에 저장되어 있다. 이제는 "느끼는 것이 힘이다. 느껴야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지식은 누구나 공유할 수 있지만 느끼는 오직 나만의 것이다. 그래서 느끼는 힘이다.

지금까지는 IQ 높은 사람이 세상을 지배했다면 앞으로는 EQ(감성지수) 높은 사람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세기에는 SQ(영혼지수) 높은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될지 모른다. 인문학이 활짝 꽃을 피울 때 세상은 비로소 행복이 넘쳐날 것이다. <소설가>

‘통일준비위’ 우윤근의원 포함 50명 참여

부위원장 정종욱 인천대 교수

박근혜 대통령을 위원으로 하는 통일준비위원회가 15일 공식 발족했다.

이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총 50명의 통일준비위 인적구성(대통령·민간위원 30명·여야의원 2명·통일부 장관 등 정부인사 11명·국책연구기관장 6명)과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통일준비위가 발족함에 따라 향후 북한 민생인프라 구축 등을 담은 '드레스덴 구상' 등의 구체화를 비롯한 '통일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전망이다.

민간위원들(30명)은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정치법제도 등 총 4개 분과위원으로 배치돼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31명)과 통일정사진 및 통일준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작업을 맡게 된다.

민간 부위원장은 김영삼 정부 시절 주중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정종욱 인천대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민간위원들은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활동했던 중앙감인사들이 대거 합류했다. 고건 전 국무총리, 한승주 한미협회 회장(전 주미대사·외교부 장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 라종일 한양대 석좌교수 등이다. 보수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다. 눈에 띄는 진보 인사로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 고유환 동국대 교수 정도다.

이들 외에 여야 정책위의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했다. 정부위원으로는 부위원장인 류길재 통일부장관을 포함해 기획재정부·외교부·국방부 장관 등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NSC 사무처장, 민주평통 사무처장 등이, 국책연구기관에는 통일연구원장 등 6개 기관장이 각각 참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부, 농·축산 분야 30억

민간단체 통해 대북 지원

정부가 농업·축산·보건 의료 분야에서 30억원 규모의 대북지원을 민간단체를 통해하기로 결정했다.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단행된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정부 예산으로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인도적 지원, 농·축산 협력 지원 입장에 따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늘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 축산, 보건 의료 3개 분야에 10억원씩 총 30억원을 민간단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모든 부문에 정부의 지원이 풀린 건 아니다"라며 "정부가 연초부터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을 향상시키는 (지원) 아이টে임을 확대하겠다고 표명하 바 있어 거기에 따라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국회, 제헌절 행사 축소

정의화 국회의장은 제66주년 제헌절인 오는 17일 국회 잔디밭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KBS '열린음악회' 녹화를 무기한 연기하는 등 제헌절 경축행사를 축소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실이 15일 밝혔다.

이는 국회가 세월호특별법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전날부터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공군 특수비행단인 블랙이글의 축하비행도 취소됐다. 다만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된 김민숙 명칭의 공연 및 부리부리 무용단의 힐링공연 등 문화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열린음악회 녹화에 대해 "특별법이 통과 안 되면 있을 수 없다. 눈물의 단식을 하는 유가족 앞에서 풍악을 울리는 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부 조달물자계약 업체

모든 가구가 한곳에!

취급품목
사무용
교육용
의료용
주방가구
아파트실내가구

(주)엔에스퍼니처 광양지사
T (061)793-7704 H 010-3114-3063
웹사이트 ID : gane82 / PW : 1111
광양시 중앙로 494-1 (마동정수장 옆)

가치와 사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회사
사회와 함께하는 회사

저희 법인은 기존의 보상 및 담보평가는 물론이고 부동산투자자산, 개발타당성분석, 기업가치 및 부동산 증권화에 수반된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 감정평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문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기업평가연구원을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의 전문가자격자와 학계의 저명한 교수들과도 NET-WORK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금융기관 및 부동산회사들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지정 대량감정평가 법인
자산재평가 전담팀 운영
공정 가치평가본부 02-2051-2800

(주)가람감정평가법인 호남지사 T.(061)375-6540 F.(061)375-6542